

# SK, 인천정유 인수 1순위 부상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 2순위 STX에 3순위 Citigroup

정유시장 최대 현안인 인천정유 매각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SK가 선정됐다.

인천정유를 법정관리중인 인천지법 파산부(서명수 수석부장판사)는 8월19일 인천정유 매각 입찰제안서를 접수해 희망 인수가격과 경영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SK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예비협상자로 STX컨소시엄을, 2차 예비협상자로 Citigroup Financial Produc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SK는 희망 인수가격으로 1조원이 넘는 액수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희망 인수가격과 자금조달과 경영능력, 고용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다음주 초 SK가 인천정유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한달간 상세실사에 들어가 최종가격을 조정하면 10월 중순에 본계약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1주일 정도 예상됐으나 주간사에서 제안서 접수 직후 인력을 총동원해 밤샘작업을 벌여 우선협상자를 신속히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우선협상자는 한달간 정밀실사를 거쳐 최종 인수가격을 제시한 뒤 담보채권자의 3/4, 무담보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천정유를 인수할 수 있다.

인천지법은 인수절차가 11월까지는 모두 마무리돼 정유시장 최대 현안인 인천정유 매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8/22>